

#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정숙\*\*

정다정\*\*\*

## 〈目 次〉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V. 결론 및 시사점 |
| III. 연구 설계           |             |

## 〈요 약〉

국가마다 정부신뢰가 정책 및 국정운영의 성공에 주된 영향요인이라 보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부신뢰의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밝혔으나,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주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정부신뢰를 높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와 관련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참여는 사회적 자본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같은 매개효과는 고신뢰군에서 나타나고 저신뢰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이 갖는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를 통해 정부신뢰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를 신뢰하는 경우에만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의 선순환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신뢰가 낮은 시민들에 대한 정부신뢰 향상 방안이 요구된다.

【주제어: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 고신뢰군, 저신뢰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636).

\*\* 제1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jskim@krila.re.kr)

\*\*\* 공동저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jeong\_dj@yonsei.ac.kr)

논문접수일(2018.11.23), 수정일(2019.3.5), 게재확정일(2019.3.15)

## I. 서론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OECD에서 수행된 정부신뢰도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작년에 비해 7위 오른 25위를 기록하였다.<sup>1)</sup> 정부신뢰는 국민이 갖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정책의 성공과 사회적 통합, 나아가 국정운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Kim, 2005; 박순애, 2006; 배귀희·임승후, 2009). 따라서 각 정부는 국민의 정부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며,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정부신뢰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지난 3-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Nye 외(1997)의 연구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정부신뢰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Keele(2007)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장수찬(2007)의 연구에서도 한국 사회의 신뢰수준 하락 현상에 주목하였는데, 지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사회의 신뢰도가 낮아진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정부 기관과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를 들고 있다.

정부신뢰가 갖는 중요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정부신뢰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실시되어 왔다(Nye et al., 1997; 서현진, 2003; Keele, 2007; 김대욱·이승중, 2008; 박희봉·신중호·황윤원, 2013).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신뢰의 주된 영향요인으로 크게 정부 정책의 성과 및 대통령의 이미지(Citrin, 1974; Miller, 1974, 배귀희·임승후, 2009; 이숙중·유희정, 2015), 사회문화적 요인(Aberbach & Walker, 1970; Cole, 1973; Miller, 1974; Howell & Fagan, 1988; Michelson, 2003; Wenzel, 2006), 사회적 자본(Newton, 1999; Veenstra, 2002; Rothstein & Stolle, 2008; 김태형 외, 2016),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Patterson, 1993; Moy & Pfau, 2000; 서문기, 2001; 배귀희·임승후, 2009)을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이 누락되었다고 가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정치참여가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이라는 다수의 연구들이 존재하나,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정

1) 2018.11.0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치참여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정부신뢰도 높아지는가? 셋째,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를 통해 정부신뢰로 발전하는가? 그리고 넷째, 신뢰 정도에 따라 정치 참여의 매개효과가 달라지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 간 이론적 연결 관계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구에서 활용하는 분석방법과 분석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고, 연구에서 이러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활용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정부신뢰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신뢰의 대상으로서 정부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부기관, 공무원 등의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하며 이들의 역량이나 역할, 가치 등 다분히 주관적인 면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정부신뢰의 대상과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신뢰의 개념은 보편적인 정의가 없어 매우 다양하고 모호하게 규정되며, 정부신뢰에 대한 개념적 정의 역시 명백하지 않다(김대욱·이승중, 2008). 정부신뢰는 다른 신뢰와 동일하게 개인이 갖는 감정적인 측면을 통해 정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정부성과, 정책적 산출물, 정부의 역량이나 역할, 공공 가치와 관련한 개념으로 정의한다(Barver, 1983; Craig, 1993; Hetherington, 1998; 양건모, 2007).

먼저,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정부의 성과와 관련한 각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 및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얼마나 이루는가에 주목한다(Hetherington, 1998). 정부성과나 정부의 정책적 산출물이 국민의 기대만큼 이루어졌는가를 토대로 정부신뢰를 정의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보다는 주관적인 측정도구인 정부관료나 정치가들의

효율성, 정직, 역량, 성실성 등이 더욱 적합할 수 있다(Craig, 1983). Miller(1974)는 정부 신뢰를 국민들의 규범적인 기대에 따라 정부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로, Hetherington(1998)은 정부의 산출물에 대한 평가 혹은 국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는가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신뢰를 정부의 역량이나 역할, 공공 가치와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정부역량에 대한 기대, 성실의무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가, 혹은 정부가 정의 형평성, 효율성, 합법성을 준수하는가를 통해 정부신뢰를 설명하고 있다(Barber, 1983; 양건모, 2007). Barber(1983)는 정부신뢰를 유능한 역할 수행과 수탁 책임에 대한 기대로 정의했다. 양건모(2007)은 정부신뢰를 정부의 역할수행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기대로 정의하고 역할수행을 다시 일반적 역할수행과 특정적 역할수행으로 구분하였다. 김태형 외(2016)에서는 정부신뢰 개념을 정부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합치하도록 공익을 추구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성과를 창출해낸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차재권·류태건(2018)은 정부신뢰를 시민(국민 또는 주민)이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의도나 행위나 역할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심리상태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부신뢰는 일반적인 신뢰가 갖는 중요성과 함께 정부라는 제도가 신뢰를 받을 때 부가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뢰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통합의 기반이 되고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제도로써 의회와 대통령이 법안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기도 한다(Kim, 2005; 박순애, 2006; 배귀희·임승후, 2009). 국민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민주주의 지표로서 간주되는 것처럼 정부성도가 미진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신뢰 수준이 낮다면, 이는 결국 정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저항적인 흐름에 직면하기도 한다(Gamson, 1968; Aberbach, 1969). 따라서 정부신뢰는 성공적인 국정 수행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발전의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Putnam, 1995; 김석준, 2002; 박순애, 200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정부신뢰를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손호중 외, 2005; 김대욱·이승중, 2008).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 정부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 민주적인 권력과 권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국정 수행이 용이하나,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는 정권교체 등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 정부제도의 개혁과 같은 구조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신뢰는 중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박희봉·신중호·황운원, 2013).

## 2.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이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 결과 혹은 대통령의 이미지나 국정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 정부신뢰가 결정된다고 보는 연구들이 있다(Citrin, 1974; Miller, 1974, 배귀희·임승후, 2009; 이숙중·유희정, 2015). Miller (1974)는 정부의 정책 성과라 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선호 및 평가가 정부신뢰를 결정한다고 봤고, Citrin(1974)는 대통령의 이미지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것이 정책이슈(policy issue)인지, 아니면 대통령 개인에 의한 것인지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Erber & Lau, 1990; 배귀희·임승후, 2009). 배귀희·임승후(2009)는 개인의 정책에 대한 선호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할수록, 개인이 대통령의 국정 및 직무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정부신뢰의 정도가 높아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Citrin(1974)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숙중·유희정(2015)의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주어 대통령 신뢰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문화적 요인과 태도 요인이다(Aberbach & Walker, 1970; Cole, 1973; Miller, 1974; Howell & Fagan, 1988; Michelson, 2003; Wenzel, 2006). 인구통계학적 요인, 정치적 이념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일관되지 않았고, 그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정부나 공공 부문에 대한 태도가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귀희·임승후, 2009).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이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기도 한다(Cole, 1973).

셋째, 자발적인 시민사회활동이나 사회적 자본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다수의 연구들은 자발적인 시민사회활동이나 사회적 자본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Newton, 1999; Veenstra, 2002; Rothstein & Stolle, 2008; 김태형 외, 2016).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에서는 자발적인 조직이 개인적 수준에서 신뢰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교차횡단적 유대(cross cutting ties)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주어 사회의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돕는다고 설명한다(Newton, 1999). 또한 사회적 자본은 정부신뢰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김태형 외, 2016), 사회적 자본으로 통칭되는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상호 호혜성 등은 정부 운영과 관련된 거버넌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중 외, 2008).

넷째, 미디어의 영향을 들 수 있다(Patterson, 1993; Moy & Pfau, 2000; 서문기, 2001; 배귀희·임승후, 2009). 미디어는 사회현상이나 대통령의 국정수행, 정부의 정책성과 등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의 정부신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서문기, 2001). 특히 언론의 형태, 즉 신문이나 TV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미디어가 시민들이 갖는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배귀희·임승후, 2009).

이상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수의 실증적인 연구들이 실시되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이 다양하게 밝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다. 앞서 살펴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네 가지 흐름은 정부신뢰의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정부신뢰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에 따라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정부신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 파악해보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 3.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사회적 자본이 갖는 정의의 영역은 광대하고 포괄적이다. 사회적 자본의 광범위한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은 아직 없으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다측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Putnam(1995)은 사회자본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들이며, 사회자본의 원천으로서 사회적 연계망, 규범, 신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Fukuyama(1997)는 사회자본을 그룹과 조직에서 공통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며, 사람들 사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한 집단의 회원들 사이에 공유된 어떤 일단의 비공식적 가치 또는 규범의 존재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상호 간 협력을 촉진시키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과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으로 정의된다(이숙중·유희정, 2010: 288).

사회적 자본의 주요 유형으로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이타주의, 인본주의, 공동체 의

식, 소통 등을 볼 수 있다(최예나, 2016).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합의된 사항이 없어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참여 등이 포함된다(진관훈, 2012).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 사회참여, 상호호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Bourdieu(1996)는 사회적 자본 연구의 핵심을 네트워크로 여겼으며 사회적 자본을 서로 익히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제도화된 네트워크에 연계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산이라 정의하였다(진관훈, 2012; 397; 재인용). Lin(2001)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와 연결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적 자원으로 봤다(이창호·정낙원, 2014; 8; 재인용).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대인신뢰가 증가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Putnam, 1993; Fukuyama, 1995; 박현주, 2017). Putnam(2000)에 의하면 사회자본은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로 구분될 수 있다. 결속적 사회자본은 특성이 유사한 집단 내부의 구성원들을 결속하게 해주며, 교량적 사회자본은 특성이 다른 집단과 갖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남궁근, 2007; 김태형 외, 2016)

다수의 선행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Putnam et al., 1993;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Keele, 2007; 김왕식, 2011). Putnam 외(1993)는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모임과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면 상호 간의 신뢰가 높아져 정부신뢰가 향상될 것이라 보았다. Levi(1996)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적 신뢰 사이에는 상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Brehm과 Rahn(1997)은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연구에서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중심으로 대인신뢰와 정치제도 신뢰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한다. Keele(2007)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신뢰와 사회자본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실제 사회자본과 정부신뢰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자본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Keele, 2007). 이러한 논의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높을 것이라는 가설1을 설정하였다.

가설1 :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높을 것이다.

#### 4.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 간 관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

양수, 2006; 이숙종·유희정, 2010)와 정치참여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Hetherington, 1998; Levi & Stoker, 2000; Rothstein, 2001)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간의 매개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에서 정치참여가 갖는 매개효과에 주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가정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들이 형성되어 왔다(Putnam et al., 1993; Keele, 2007; 박희봉·신중호·황윤원, 2013). Keele(2007)는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개인이 갖는 네트워크와 상호호혜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정치적 의견 개선 및 정치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고 설명한다. 즉, 시민들은 정부나 지역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절차를 형성하는 사회적 변화나 통제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Keele, 2007; 244). Putnam 외(1993)는 개인이 갖는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을수록 공익을 위해 협력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참여하여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부신뢰를 갖게 될 거라고 설명한다. 박희봉·신중호·황윤원(2013)은 사회 구성원인 개인들 간 활발한 토론과 협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참여가 활성화될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진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참여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참여의 전제로서 사회적 자본을 일정 부분 갖추었다고 가정할 때, 정치참여는 이들이 갖는 네트워크와 공익적 목표를 위한 상호호혜적 성향이 정부신뢰로 이어지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Hetherington, 1998; Levi & Stoker, 2000; Rothstein, 2001). Rothstein(2001)은 노동조합이나 정당에 가입하는 등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가 설명하는 노동조합이나 정당 등은 개인이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사회적 자본은 정치 참여를 매개로 하여 정부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2 : 사회적 자본은 정치 참여를 매개로 하여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Ⅲ. 연구 설계

####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부신뢰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독립변수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사회적 자본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정치참여는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정리하였다.

〈표 1〉 연구모형

분류	연구의 모형
경로 A	$X_{\text{정치참여}} = \beta_0 + \beta_1 X_{\text{사회자본}} + \beta_k C_{\text{통제변수}} + \epsilon$
경로 B	$X_{\text{정부신뢰}} = \beta_0 + \beta_1 X_{\text{정치참여}} + \beta_k C_{\text{통제변수}} + \epsilon$
경로 C	$X_{\text{정부신뢰}} = \beta_0 + \beta_1 X_{\text{사회자본}} + \beta_k C_{\text{통제변수}} + \epsilon$
경로 C'	$X_{\text{정부신뢰}} = \beta_0 + \beta_1 X_{\text{사회자본}} + \beta_2 X_{\text{정치참여}} + \beta_k C_{\text{통제변수}} + \epsilon$

#### 2. 분석자료의 특성

〈표 2〉 설문조사 응답자의 속성

변수	범주	빈도(명)	비율(%)	변수	범주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164	16.3	소득	50만원 미만	12	1.2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9	2.9
	30대	173	17.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4	9.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3	15.2
	40대	204	20.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19	21.8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62	16.1
	50대	204	20.3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40	13.9
					600만원 이상	197	19.6
60대	224	22.3	지역	서울	191	19.0	
				70대 이상	37	3.7	부산
대구	50	5.0					
성별	남성	505		50.2	인천	58	5.8
					여성	501	49.8

학력	무학	2	0.2	광주	29	2.9
	중졸 이하	8	0.8	대전	29	2.9
	고졸 이하	214	21.3	울산	21	2.1
	2년제 대졸 이하	131	13.0	경기	244	24.3
	4년제 대졸 이하	526	52.3	강원	29	2.9
	대학원 졸업 이상	125	12.4	충북	30	3.0
				충남	42	4.2
			전북	36	3.6	
			전남	40	4.0	
			경북	52	5.2	
			경남	64	6.4	
			제주	11	1.1	
			해외	10	1.0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SSK 미래정부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설문 문항 내에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정치참여, 이념성향,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에 시행된 것으로, 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관은 (주)한국리서치로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인구비례추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1,006명의 응답자로부터 설문결과를 수집하였다. 설문응답자의 구체적인 현황은 위의 <표 2>과 같다. 분석방법은 STATA 13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매개회귀분석 및 매개효과 측정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Cohen과 Cohen(1983)은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복잡한 모형에서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모형이라고 소개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갖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매개효과의 경우 완전매개 및 부분매개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장점을 지닌다.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앞서 언급한 구조방정식 모형과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들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분석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방법으로 요인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을 발전적으로 결합한 모델이다(강경태, 2006). 이에 비해 3단계 매개회귀분석은 변수의 수가 많을 때 측정변수가 많은 경우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에 대한 통제요인인 소

득, 교육수준,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의 네 가지 가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Baron & Kenny, 1986). 1)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2)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3)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델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4) 독립변수가 갖는 회귀계수는 1단계에서 3단계로 갈 때 낮아져야 한다. 이같은 조건들은 다음의 <표 3>로 정리할 수 있다.

3단계 매개회귀분석에서는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완전매개의 경우 가정 3)에서 매개변수를 통제한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지 않고, 부분매개의 경우 가정 3)에서 매개변수를 통제한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다(Van Dyne et al, 1994; 류은영·유민봉,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활용할 때 서열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서열로짓분석은 설문조사의 리커트 척도와 같이 서열변수로 측정된 종속변수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서열변수가 1단위씩 증가함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누적확률로서 계산하기 위한 모형이며, 회귀계수와 오즈비(odds ration)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장점을 갖는다.

<표 3>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

회귀식	조건
$X_x = \alpha_i + \beta_1 X_1 + u_i$	회귀식 1)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야 한다.
$Y_x = \alpha_i + \beta_2 X_1 + u_i$	회귀식 2)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야 한다.
$Y_x = \alpha_i + \beta_3 X_1 + \beta_4 X_2 + u_i$	회귀식 3)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가져야 한다.
$\beta_3 < \beta_1$	회귀식 3)의 회귀계수가 회귀식 1)의 회귀계수에 비해 작아야 한다.

\* 출처: Baron and Kenny 1986; 류은영·유민봉 2008; 재인용

#### 4. 변수의 측정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앞서 언급한 설문문항 중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단일문항인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를 묻는 문항을 토대로 정부신뢰를 측정하였다(문승민·최선미, 2018). 설문문항은 리커트 5점(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은 아래의 <표 4>에 기술하였다.

##### 2) 독립변수

###### (1) 사회적 자본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 상호호혜 등 다양한 개념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이양수, 2006; 이곤수·송진섭, 2007; 이숙종 외, 2008; 이숙종·유희정, 2010). 이숙종과 유희정(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신뢰와 네트워크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이곤수와 송진섭(2007)은 사회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의 세 가지 요소로 측정하였다. 이숙종 외(2008)는 사회자본을 사회신뢰와 기관신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처럼 사회자본은 다양한 개념들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사회자본을 제도신뢰, 민간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의 네 가지 개념들을 종합하여 설문문항들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문항 중 노동조합, 시민단체에 관한 신뢰 수준을 묻는 문항을 제도신뢰로,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기업에 관한 신뢰 수준을 묻는 문항을 민간신뢰로 파악하였다. 또한 ‘평소 이웃들과 자주 교류한다. 평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의 두 가지 문항을 각각 네트워크와 상호호혜로 판단하고 측정하였다. 제도신뢰와 민간신뢰의 경우 리커트 5점 척도로, 네트워크와 상호호혜의 경우 리커트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5점 척도를 10점 척도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처럼 설문문항의 척도가 다를 경우, 설문문항을 표준화하여 활용하였다(금현섭·백승주, 2010).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5점 척도를 10점 척도로 변환한 값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환하였다.

###### (2) 정치참여

정치참여는 “보통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투표에 참여한다.”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우진(2009)은 정치참여를 지난 선거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은 리커트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변수 요약

변수		측정 및 검토방안
종속 변수	정부신뢰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
독립 변수	사회자본	나는 노동조합단체를 신뢰한다. 나는 시민단체를 신뢰한다. 나는 교육기관을 신뢰한다. 나는 의료기관을 신뢰한다. 나는 대기업을 신뢰한다. 나는 금융기관을 신뢰한다. 평소 친구나 친지들과 자주 교류한다. 평소 이웃들과 자주 교류한다. 평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 이웃에 있다면 교류할 것이다.
매개 변수	정치참여	보통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투표에 참여한다.
통제 변수	소득	귀택의 한 달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교육수준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연령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당지지	만약 오늘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귀하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념성향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SNS 정치표현	귀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얼마나 자주 정치적인 의견을 표출하십니까?

## IV. 분석결과

### 1.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여 각각 설문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VARIMAX 회전방식을 활용하여 요인적재량을 산출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설문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한 결과, 0.8020으로 신뢰도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요인분석 결과 애초에 활용하고자 했던 설문 문항들 내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과 후,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지 않은 설문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하나로 묶어 각 값을 합한 후 평균값을 구해 새로운 변수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값을 이후 서열로짓분석에서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 5> 정부신뢰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Variable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Factor7	Factor8	비고
정부신뢰	-0.0065	0.0914	0.5154	0.1868	0.026	-0.0167	0.039	0.1494	
사회자본	0.1791	0.0136	0.7208	-0.0429	0.0425	-0.0035	-0.0078	-0.0282	Cronbach $\alpha$ =.8020
	0.1614	0.0398	0.7483	0.058	-0.0233	-0.0459	0.0117	-0.0162	
	0.4675	0.053	0.4455	-0.1354	-0.0297	0.2227	-0.0571	-0.0482	
	0.3408	0.0604	0.5199	-0.1048	0.0128	0.2125	0.0107	0.0441	
	0.6213	0.037	0.3115	0.1069	0.1269	-0.0563	0.0834	-0.0038	
	0.6873	0.0422	0.1342	0.1473	-0.0093	-0.0848	0.034	0.021	
	0.6714	0.1098	-0.0004	-0.1069	-0.0478	0.1683	-0.0506	-0.0438	
	0.4796	0.177	0.2189	-0.1051	-0.0089	0.0905	0.0492	-0.1137	
	0.7456	0.1088	0.165	0.0103	0.0021	-0.0274	-0.0307	0.0341	
	0.0361	0.5759	0.0379	-0.1211	0.0094	-0.0449	0.0237	0.1001	
	0.1048	0.5608	-0.023	0.3552	0.232	0.0041	-0.0921	0.0243	
	0.0162	0.3605	0.1262	0.0708	0.3189	-0.0117	0.0172	-0.0014	
	0.1392	0.7263	0.0615	0.0751	0.0185	0.0804	-0.0539	-0.0261	
	0.1088	0.6779	0.028	-0.0507	-0.0257	-0.0516	0.0385	0.0033	
	0.0198	0.4377	0.0134	0.2332	-0.006	-0.0546	0.228	0.0235	
0.0366	0.5511	0.0899	0.3755	-0.078	0.0116	0.1465	-0.0812		
정치참여	0.0386	0.1906	-0.0024	0.5464	0.0227	-0.036	0.0019	0.0215	

2) 기술통계 결과

<표 6>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신뢰와 사회자본은 모두 10점 척도 중 중간에 속하는 5.35와 5.77의 평균값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정치참여는 10점 척도 중 중상에 속하는 7.95의 평균값을 갖고 있어, 응답자들 대부분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정부신뢰

와 사회자본을 갖고 있으나, 정치참여 인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정부신뢰에 대해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모두 정(+)의 방향으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변수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종속	정부 신뢰	5.8	2.0	1										
독립	사회 자본	5.3	1.5	0.151**	1									
매개	정치 참여	7.9	2.4	0.156**	0.308**	1								
통제	소득	5.6	1.8	0.029	0.077*	0.113**	1							
	교육 수준	5.5	1.0	0.008	0.066*	0.110**	0.316**	1						
	성별	0.5	0.5	-0.025	0.034	0.027	0.004	0.122**	1					
	연령	46.9	14.2	-0.018	0.230**	0.023	-0.058	-0.193**	-0.036	1				
	여당 지지	0.3	0.5	0.453**	-0.029	0.139**	-0.001	0.044	-0.035	-0.154**	1			
	이념 성향	3.1	0.8	0.373**	0.002	0.074*	0.017	0.039	-0.005	-0.155**	0.318**	1		
	SNS 정치 표현	3.5	2.0	0.086**	0.144**	-0.053	-0.024	0.063*	0.130**	0.059	0.014	0.126**	1	

주 1) N=1,006, \*p<.05, \*\*p<.01  
 2) 상관관계 값은 피어슨 상관계수 값을 의미

## 2. 정치참여의 매개효과 검증

다음은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 매개회귀분석의 결과가 유의미하기 위하여 1)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모델 1), 2)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모델 2), 3)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모델 3), 4) 모델 1과 모델 3을 비교할 때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낮아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네 가지 가정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정부신뢰는 독립변수인 사회자본과 매개변수인 정치참여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델 1에서는 사회자본이 매개변수인 정치참여에 신뢰수준 99%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0.402의 회귀계수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델 2에서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신뢰수준 99%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회귀계수는 0.236이었다. 마지막으로 모델 3에서는 사회자본과 정치참여가 모두 정부신뢰에 신뢰수준 99%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회귀계수는 각각 0.206, 0.0547이다. 또한 모델 2와 모델 3을 비교할 때 사회자본의 회귀계수가 0.236에서 0.206으로 낮아짐을 확인하여 매개변수인 정치참여가 사회자본에 갖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때 정치참여는 사회자본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1, 2, 3에서 모두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연령, 여당지지, 이념성향이 모형 2와 3에서 정부신뢰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여당지지 여부는 정치참여를 매개로 정부신뢰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당지지의 경우 모델 1, 2, 3 모두에서 신뢰수준 99% 수준에서 정(+)의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모델 2에 비해 모델 3의 회귀계수가 낮아 정치참여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경우 정치참여에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 수준도 높으며, 정치참여가 이러한 정부신뢰 수준을 매개하여 좀 더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서 가설 1과 2를 통해 제시한 것처럼 사회자본이 정부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 과정을 개인의 정치참여가 매개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이숙중·유희정(2008), 박희봉 외(2003), Keele(200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대인신뢰, 제도신뢰, 네트워크, 상호호혜 등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자본은 조직과 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공통의 규범 및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밝혀왔다. 또한 개인이 지역의 이웃이나 친지들과 친교활동을 활발히 벌이거나, 이타적인 목적 하에 공동선을 위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사회적 자본을 갖추는 행위는 정치 및 정치참여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sup>2)</sup> 특히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표 행위가 정책이나 국정방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2) 이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치참여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숙중·유희정(2008)의 연구에 따르면 선거적 참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선거 참여 혹은 적극적 선거 유형인 정치인에 대한 접촉, 정당 활동, 집회 및 시위 참여 등의 요인들을 함께 다루지 못했다는 데에서 한계를 갖는다.



높여 정치참여를 높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부신뢰를 촉진할 수 있다.

〈표 7〉 정치참여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정치참여	정부신뢰	정부신뢰
독립변수	사회적 자본	0.402*** (9.03)	0.236*** (5.47)	0.206*** (4.51)
매개변수	정치참여			0.0547** (2.07)
통제변수	소득	0.0711** (2.03)	0.0434 (1.23)	0.0378 (1.07)
	교육 수준	0.0864 (1.40)	-0.0861 (-1.35)	-0.0900 (-1.42)
	성별	0.132 (1.12)	-0.0408 (-0.34)	-0.0498 (-0.41)
	연령	-0.000423 (-0.10)	0.00765* (1.72)	0.00775* (1.74)
	여당지지	0.725*** (5.21)	1.824*** (12.40)	1.790*** (12.12)
	이념성향	0.109 (1.44)	0.725*** (8.96)	0.722*** (8.92)
	SNS 정치표현	-0.115*** (-3.83)	0.0447 (1.44)	0.0539* (1.71)
상수	상수 1	-1.357** (-2.40)	1.817*** (3.48)	2.040*** (3.82)
	상수 2	-0.966* (-1.78)	3.283*** (6.25)	3.505*** (6.53)
	상수 3	-0.352 (-0.67)	5.560*** (10.18)	5.791*** (10.36)
	상수 4	0.215 (0.42)	8.268*** (14.11)	8.511*** (14.20)
N		1006	1006	1006
LR chi2		142.48	358.86	363.14
Pseudo R2		0.0383	0.1272	0.1287
Log Likelihood		-1787.1468	-1231.5394	-1229.4012

\* p<0.1, \*\* p<0.05, \*\*\* p<0.01

다음의 <표 8>에는 정부신뢰 수준이 높은 시민들과 정부신뢰 수준이 낮은 시민들을 구분하여,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고신뢰군과 저신뢰군은 정부신뢰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평균값보다 같거나 높을 때 고신뢰군으로, 평균값보다 작을 때 저신뢰군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은 <표 7>에서와 마찬가지로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표 8> 정치참여의 매개효과 분석결과-고신뢰군 vs 저신뢰군

		고신뢰군			저신뢰군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정치참여	정부신뢰	정부신뢰	정치참여	정부신뢰	정부신뢰
독립 변수	사회적 자본	0.206*** (-6.03)	0.211*** (-2.98)	0.144** (-1.97)	0.284*** (-6.35)	0.218 (-1.61)	0.306** (-2.09)
매개 변수	정치참여			0.285*** (-3.63)			-0.225 (-1.59)
통제 변수	소득	0.039 (-1.18)	-0.008 (-0.11)	-0.032 (-0.43)	0.096** (-2.29)	-0.216 (-1.55)	-0.195 (-1.39)
	교육 수준	0.065* (-1.94)	-0.04 (-0.54)	-0.059 (-0.80)	-0.024 (-0.58)	0.022 (-0.16)	0.023 (-0.16)
	성별	0.006 (-0.18)	0.146** (-2.09)	0.148** (-2.1)	0.034 (-0.88)	-0.124 (-0.96)	-0.121 (-0.93)
	연령	0.013 (-0.4)	0.181** (-2.45)	0.178** (-2.38)	-0.054 (-1.31)	-0.026 (-0.19)	-0.039 (-0.28)
	여당지지	0.175*** (-5.11)	0.527*** (-7.3)	0.494*** (-6.76)	0.008 (-0.2)	0.491** (-2.43)	0.491** (-2.43)
	이념성향	0.058* (-1.73)	0.437*** (-5.83)	0.426*** (-5.69)	-0.016 (-0.40)	0.478*** (-3.39)	0.475*** (-3.36)
	SNS 정치표현	-0.027 (-0.86)	0.006 (-0.09)	0.017 (-0.25)	-0.021 (-0.54)	0.045 (-0.34)	0.041 (-0.31)
상수	상수 1	-1.096 (-1.46)	4.754*** (-6.08)	5.364*** (-6.61)	-1.649* (-1.80)	.952 (0.92)	.637 (0.6)
	상수 2	-.682 (-0.96)	7.537*** (-9.18)	8.188 (-9.59)	-1.268 (-1.42)	-	-
N		690	690	690	316	316	316
LR chi2		81.35	131.66	145.57	51.76	29.83	32.40
Pseudo R2		0.0334	0.1142	0.1262	0.0413	0.0716	0.0778
Log Likelihood		-1178.895	-510.782	-503.827	-600.473	-193.359	-192.073

\* p<0.1, \*\* p<0.05, \*\*\* p<0.01

분석결과, 고신뢰군의 경우 앞서 전체 시민들을 분석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를 매개하여 정부신뢰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들 중 여당을 지지하는 여부와 이념 성향의 경우에도 정치참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에 비해 저신뢰군의 경우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참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같은 분석결과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시민층의 경우, 활발한 정치참여를 통해 그들이 가진 상호호혜, 네트워크,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정부신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송경재(2010: 126-127)가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자본이 신뢰와 규범의 형성을 통해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며 시민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시민들의 경우 사회자본이 정부신뢰를 높이는데 의미있는 요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활발한 정치참여가 정부신뢰를 높이는데 별다른 효과를 갖지 않았다. 또한 통제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역시, 정부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은 시민들의 경우에만 여당 지지층과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정치참여를 매개로 정부신뢰를 높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들이 갖는 정부신뢰가 다층적이며 복합적 개념이며 쉽게 형성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이다. 즉,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진 시민들의 경우, 자신이 가진 사회자본을 토대로 투표, 선거 등 공식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정부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과정이 가능하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선순환 과정이 없는 것이다. 이는 Barber가 설명한 것처럼 신뢰가 서로 간에 갖게 되는 기대를 기반으로 쌓이며, 이러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1983).

다음의 <표 9>는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에 갖는 매개효과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시민들의 사회적 자본이 갖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그리고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에 갖는 매개효과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접효과(0.236)와 간접효과(0.082)를 종합한 결과 총효과(0.318)를 갖기 때문에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에 갖는 매개효과는 0.258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고신뢰군의 경우 시민들이 갖는 사회적 자본의 직접효과가 0.211이며, 간접효과가 0.029, 총효과가 0.24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참여가 갖는 매개효과는 0.121이다. 이러한 연구대상들을 비교할 때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는 일반 시민들에게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 정치참여의 매개효과값

구분	변수	정부신뢰				종류
		직접효과 (2단계 베타값)	간접효과 (1단계 베타값*3단계 베타값)	총효과 (직접효과+간 접효과)	매개효과 (간접효과/총 효과)	
전체	사회적자본	0.236	0.082	0.318	0.258	부분매개
고신뢰군	사회적자본	0.211	0.029	0.240	0.121	부분매개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원을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의 정부신뢰에 관한 선행연구를 파악해본 결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치적 성향 등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가 각각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경우가 존재했으나,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에서 정치참여가 갖는 매개효과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이양수, 2006; 이숙종·유희정, 2010), 정치참여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손호중·채원호, 2005; 김대욱·이승중, 2008), 이러한 세 가지 주요한 개념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 간 관계에서 밝혀지지 못한 블랙박스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참여는 사회적 자본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시민들의 경우에도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정부신뢰를 높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시민들의 경우에는 정치참여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이 갖는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를 통해 정부신뢰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들에서 이론적으로 밝히던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지닌다. Keele(2007)은 미국의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사회적 자본, 참여, 정부신뢰에 관한 시계열 데이터의 변화를 보여주며,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간 인과관계의 역동적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연구한 Putnam(1994) 역시 개인이 갖는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활동이나 참여 등을 통해 제도에 관한 신뢰로 발전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치참여가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점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이숙종과 유희정(2015)의 연구에서 밝힌 대통령신뢰의 매개효과나 문승민과 최선미(2018)의 연구에서 밝힌 정부역량의 매개효과 이외에도 정치참여가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새롭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고신뢰군과 저신뢰군에 따라 정치참여가 갖는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고신뢰군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정부신뢰 사이에서 정치참여가 매개효과를 갖고 있지만, 저신뢰군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시민들의 경우 선거 등의 정치참여를 통해 그들이 가진 네트워크, 상호호혜 등의 사회적 자본이 정부신뢰로 선순환될 수 있으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시민들의 경우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 간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부신뢰 등의 개념을 보다 다양한 세부분야로 구분하여 연구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선행연구에서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사회적 신뢰, 네트워크, 선거참여, 비선거참여 등의 하위 개념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 알파값이 명확하지 않은 설문문항들을 고려하여 따로 세부개념으로 구분하지 않고 주요 개념만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세부개념들이 갖는 인과관계의 역동성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 참고문헌

- 강경태. (2006). 리즈렐 (LISREL) 모델을 통한 17 대 한국 총선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3): 165-189.

- 김현섭·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 김희조·조재호. (2015). 종합편성채널 시사 토크쇼 시청이 정치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9(3): 5-35.
- 김대욱·이승중. (2008).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43-62.
- 김석준. (2002). 「국가능력과 경제 통치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왕식. (2011).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141-161.
- 김태형·Khaltar Odkhuu·문명재. (2016).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6(2): 87-112.
- 민희·윤성이. (2016). 정보의 풍요와 정치참여의 양극화. 「한국정당학회보」, 5(1): 131-157.
- 박순애. (2006).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2): 73-97.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박희봉·신중호·황운원. (2013). 정부신뢰의 요인 -정부정책인가? 정치태도인가? -. 「한국정책학회보」, 22(1): 465-492.
- 배귀희·임승후. (2009).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정책선호 및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4): 61-93.
- 류은영, 유민봉. (2008).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리더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한국행정학보」, 42(4): 151-177.
- 서문기. (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35(5): 119-146.
- 서현진. (2003). 미국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도와 투표참여의 관계: 경로분석을 통한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37(1): 337-361.
- 손호중·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 양건모. (2007). 정부신뢰 개념의 이론적 논의 및 타당성 검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22.
- 이상신. (2010). 정부신뢰의 위기. 「한국정치학회보」, 44(4): 97-117.
- 이숙중·김희경·최준규. (2008).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1): 149-170.
- 이숙중·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 \_\_\_\_\_. (201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연구: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4(2): 53-81.
- 이양수. (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0(3): 25-43.
- 이창호·정낙원. (2014). 소셜미디어 이용정도 및 이용동기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

- 정보학보」, 65(2): 5-26.
- 장수찬. (2007). 한국 사회의 신뢰수준의 하락과 그 원인: 국가 간 비교 분석적 관점에서. 「세계지역연구논총」, 25(3): 125-156.
- 진관훈. (2012).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증대 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16(3): 395-412.
- 차재권·류태건. (2018). 중앙/지방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의 차이점 - 대구광역시 사례연구 -. 「대한정치학회보」, 26(1): 81-107.
- 최예나. (2016).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주민들과 선출직 기관들간 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3): 69-88.
- 허진희·서진완. (2014). 소셜 미디어 활용에 따른 정부신뢰와 효능감의 변화: 대학생층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4(1): 267-293.
- Aberbach, Joel D. (1969). Alienation and political behavior.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3(1): 86-99.
- Aberbach, Joel D. & Walker, Jack L. (1970). Political trust and racial ideolog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4): 1199-1219.
- Barber, Bernard.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Rutgers University Press.
- Baron, Reuben M. & Kenny, Davi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382.
- Bourdieu, Pier. (1996). *The Forms of Capita.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s*. ed. by J. G. Richardson. New york : Greenwood Press.
- Brehm, John & Rahn, Wendy.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Citrin, Jack. (1974).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73-988.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Hillsdale, New Jersey: Laurence Erlbaum Associates.
- Cole, Richard L. (1973). Toward as Model of Political Trust: A Causa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4): 809-817.
- Craig, Stephen C. (1993). *The malevolent leaders: Popular discontent in America*. Boulder, CO: Westview Press.
- Donath, Judith. & Boyd, Danah. (2004). Public Displays of Connection. *BT Technology Journal* 22(4): 71-82.
- Erber, R. & Lau, R. R. (1990). Political Cynicism Revisited: An Information-Processing Reconciliation of Policy-Based and Incumbency-Based Interpretations of Changes in

-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1): 236-253.
- Fukuyama, Francis. (1997). Social capital and the modern capitalist economy: Creating a high trust workplace. *Stern Business Magazine*, 4(1): 1-16.
- Gamson, William A. (1968). *Power and discontent*. Homewood, IL: Dorsey Press.
- Hetherington, Marc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owell, Susan E. & Fagan, Deborah. (1988). RACE AND TRUST IN GOVERNMENT TESTING THE POLITICAL REALITY MODEL. *Public Opinion Quarterly*, 52(3): 343-350.
- Keele, Luke. (2007). Social capital and the dynamics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2): 241-254.
- Kim, Seok-Eun. (2005). The Role of Trust in the Modern Administrative State: An Integrative Model. *Administration & Society*, 37(5): 611-635.
- Levi, Margaret. (1996). Soci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Politics & Society*, 24(1): 45-55.
- Levi, Margaret & Stoker, Laura.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475-507.
- Lin, N., Cook, K. S., & Burt, R. S. (2001).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Transaction Publishers.
- Michelson, Melissa R. (2003). The Corrosive Effect of Acculturation: How Mexican Americans Lose Political Trust. *Social Science Quarterly*, 84(4): 918-933.
- Miller, Arthur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 Moy, Patricia & Pfau, Michael. (2000). *With Malice Toward All?: The Media and Public Confidence in Democratic Institutions*. Greenwood Publishing Group.
- Newton, Kenneth.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Norris Pippa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169-187.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J. S., Zelikow, P. & King, D. C.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tterson, Thomas E. (1993). *Out of order*. New York: Knopf.
- Putnam, Robert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obert D., Leonardi, Robert. & Nanetti, Raffaella Y.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hstein, Bo. (2001).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Politics and*



*Society*, 29(2): 207-241

- Rothstein, Bo. & Stolle, Dietlind. (2008). The state and social capital: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Comparative Politics*, 40(4): 441-459.
- Rudolph, Thomas J. & Jillian Evans.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660-671.
- Valenzuela, S., Park, N., & Kee, K. F. (2009).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4): 875-901.
- Van Dyne, L., Graham, J. W. & Dienesch, R. M. (1994).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nstruct Redefinition, Measurement.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4): 765-802.
- Veenstra, Gerry. (2002). Explicating Social Capital: Trust and Participation in the Civil Space.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7(4): 547-572.
- Wenzel, James P. (2006). Acculturation Effects on Trust i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mong Mexican Americans. *Social Science Quarterly*, 87(5): 1073-1087.

## ABSTRACT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rust in Government: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Jungsook Kim & Dajeong Jeong

Every government tries to increase trust in government because it believes that trust in government is a major factor in the success of policy and administration. Several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various factors affecting trust in government, but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empirically whether social capital increases trust in government through the media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 conducted a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using survey data related to social capita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As a result,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rust in government. Additio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political participation only existed in the group with high trust in government and not in the group with low trust in government.

The two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can be linked to trust in government through political participation. Second, social capital,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only have a positive effect in the group with high trust in government. As a result, there is a need to draw up measures to increase trust in government among those who are in the group with relatively low trust in government.

【Keywords: Social Capital, Political Participation, Trust in Government, Group with High Trust in Government, Group with Low Trust in Government】